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예수회의 정체 그리고 해방신학 드루킹 사건

4월 13일(지난 주 금요일) 조선일보, TV 조선 등이 드루킹(김동원) 댓글 사건 폭로, 평창 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 “우리 선수들의 땀은 무엇이 되느냐?” 순식간에 수만 개 댓글, 보수들이 반대 추미에 더불어 민주당 대표 등 고발, 검거해 보니 민주당원, 이유: 보수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이 사건 수사는 경찰이 2월 7일에 시작, 거의 2달 동안 방치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김경수 의원 가담, 오늘 보니 지시를 내리고 처리하겠다는 메시지 매크로라는 프로그램 이용, 150여대의 휴대폰, 600여 개의 아이디, 1년 운영비만 11억원

드루킹은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 조직, 대통령 부인이 유세에서 경인선에 가야 한다고 말함. 많게는 10년 정도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경합을 벌이던 많은 이들이 이의 제기 현재의 지지율 등도 모두 조작된 것은 아닌가? 지금 얼마든지 여론 조작이 가능함을 입증함

인터넷 시대: 좋은 정보, 유용하게 쓸 수 있으나 많은 폐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심(여론)이다. 그런데 이것이 조작된다면 괴물이 등장할 수 있다. 한국 인터넷 문화의 병폐는 포털 형성, 모든 기사를 모아서 보여 준다. 좋은 것 같지만 함정이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이 얼마든지 순위를 조작할 수 있고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 가능

광우병, 세월호, 천안함, 탄핵, 대선, 탄핵, 남북대화 등 전 분야에 여론 조작 가능

그래서 미국의 구글은 검색만 제공하지 포털을 운영하지 않는다.

민심 조작에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보수 정권의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더러 부정적인 면들이 침소봉대되며 드러나서 현재 국정원장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포털을 없애야만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실

오늘은 드루킹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 정부의 실체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또한 나라를 망치는 민주노총,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교조 등: 모두 좌익, 공산주의/사회주의 편향 문재인 대통령: 신영복을 존경한다. 호치민을 존경한다. 개헌 안에 국민 대신 사람을 집어넣음

개헌의 내용: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를 떠나 사회주의 혹은 인민(사회) 민주주의

문재인 정부: 친중, 친북, 반미, 반일, 이상하게 대한민국 건국 반대, 부끄러운 나라

다문화 존중, 불법 거주자들의 혜택이 국민의 혜택보다 더 많다. 동성애 추진

2017년에는 망명권을 보장하겠다. 왜 이런 불법들이 생기는가?

문재인 정부 1년도 안 되었는데 경제 파탄, 경제 생산에는 관심이 없고 경제 나누기, 북한과의 평화 등에만 관심, 최악의 실업율, 이러다가는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

역사의 증언: 사회주의 체제로 나가면 돈이 다 빠져나가고 껌테기만 남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국민들이 이 나라의 가치를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근본을 알지 못한다.

왜, 어떻게 자유를 누리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드루킹의 발언 중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기독교 관점에서 또 이념/사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의 증언이 현 정부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대로 두면 국가가 기능을 잃게 된다. 또한 기독교의 자유를 잃게 된다.

그래서 오늘 어쩔 수없이 드루킹 발언 해석을 하려 한다.

드루킹의 발언 중 간과되는 부분

“드루킹”은 “(청와대가) 극소수의 예수회 선서를 한 자들만으로 정권을 꾸렸다”라며 “왜 윤태영(참여정부 대변인 출신)이나 ‘3철’(문 대통령 측근으로 불리는 이호철·전해철·양정철)이 밀려났나 생각해 보면 제수이트의 본색을 드러내기에는 윤태영이나 과거 참여정부의 오랜 멤버들이 청와대에 있는 게 불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의 역린은 제수이트”이므로 그런 말을 밖에다가 쉽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제수이트들한테는 조국이 없다”며 “로마가 조국”이라고 주장했다.”

제수이트, 예수회, 이들의 조국은 로마
이 말의 의미: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은 예수회(제수이트) 선서를 한 자들, 이들에게는 대한민국이
조국이 아니라 로마(로마 카톨릭)가 조국이다.”

많은 이들이 이 말의 의미를 모르고 드루킹이 이단 교주라는 등 곡해하고 있다. 그런데 이 말은 현정권의
현 주소와 앞으로 흘러갈 방향을 보여 주는 심히 중요한 말이다. 기독교인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예수회(Jesuits)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

이전까지 근 100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 대다수 인민이 봉건 제도하에서 노예처럼 삶

특권층: 천주교 사제, 수도원, 그들과 결탁한 지방 영주, 춘주교는 전체주의 시스템

전체주의: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여 집권자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정치생활은 물론, 경제·
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전체주의에는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중세 천주교,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한다. 다른 자유가 없다.

루터의 종교 개혁: 교회나 교황 사제가 아니라 개인이 그리스도에게 나간다. 집단이 아니라 개인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영적, 정치적, 경제적 노예에서 탈출

이러면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의해 교회와 봉건 독재 왕권에서 탈출, 개인의 소유 재산

르네상스 시대(음악, 미술, 서적 등), 자유 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 체제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개인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시대를 맞이함. 통치자도 뽑고, 사유 재산

이것의 씨를 뿌린 나라가 영국, 꽃을 피운 나라가 미국, 그 이후 미국의 헌법은 근대국가들의 모델
우리나라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치, 조감제 대표의 말: 미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99%는 기독교에서 왔다. 그러므로
헌법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회

이러한 자유의 물결로 인해 천주교회는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때에 천주교를 살리기 위한 조직이
등장한다. 이것이 이그나티우스 로올라의 예수회(Jesuits), 1534년 8월 15일(마리아 승천 기념일)

천주교에도 여러 파가 있다: 어거스틴, 프란시스파 예수회 등, 그런데 유독 예수회는 다른 데와 다르다:

절대적으로 교황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한다. 선교 방식은 개개 지역 적응주의(토착화 신앙),
관상 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 혹은 발견하기 등의 영성 훈련을 내세운다.

미국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중국, 남미 등에서 활동

교육 사업: 미국의 조지타운, 로올라 대학, 서강대학교 등

이 학교들 출신이 다 예수회라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역사: 어둠의 등불 책 참조

오클랜드 박사: “예수회와 그들이 맡았던 역할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류 역사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셰퍼드(J. E. C. Shepherd)저서 <바빙톤 음모>(The Babington plot)

“주후 1555년에서 1931년 사이에 예수회는 정치적 계략과 체제 전복의 음모들에 관여함으로써
적어도 83개 국가나 도시 국가 혹은 도시들에서 추방당했다.”

미국의 2대 아담스 대통령은 제퍼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예수회가 부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시의 왕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게 변장하는
그들의 무리가 여기에도 고정적으로 우글거리지 않을까요? 만일 지상과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의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로올라의 예수회일 것입니다.”

19세기의 작가 셔먼(Edwin Sherman)은 그들을 ‘지옥의 공병단’이라고 부름(1882년, The
Engineer Corps of Hell; or Rome's Sappers and Miners)

그의 책 겔표지에는 아브라함 링컨의 암살 장면이 나온다.

19세기 천주교 사제인 치니퀴(Charles Chiniquy)는 링컨의 죽음에 예수회가 깊이 관여했다고 저술함.

치니퀴는 이 사실을 1886년 그의 저서 <로마 교회에서의 50년>(Fifty Years in the Church of Rome)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링컨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 남부에 대한 싸움만이 아니다. 나의 싸움은 로마의 교황과 판 속내가 있는 예수회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맹목적이며 피에 굶주린 노예들과의 싸움이며 이것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

심지어 20세기에도 파리스(Edmond Paris)는 그의 저서 <예수회의 비밀 역사>(Secret History of the Jesuits)에서 예수회가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치의 SS 친위대는 예수회의 원리에 따라 설립되었다.”

히틀러는 자기의 측근인 히틀러를 자신을 돕는 ‘이그나티우스 로올라’라고 친근하게 불렀고, 하겐이라는 사제로부터 천주교 사원에서 나치 심벌까지 얻어 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중 예수회는 다음과 같이 공포하였다.

“히틀러의 제3제국 건설은 나치즘을 천주교식 기독교와 연합하는 것이다.”

역사를 통틀어 보면, 로올라가 만든 예수회라는 집단의 궁극적 목표는 시종일관 동일했다고 한다.

“로마 교회의 예수회는 창설된 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탁월한 첩보 및 암살 단체가 되었고 왕들과 평민들이 모두 똑같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지식인 계층이 되었습니다. 이 카톨릭 ‘반개혁 운동’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막고 사람들을 다시 로마 천주교로 데려가려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세상을 정복해 교황 천하로 만들려는 예수회의 계략을 경고하는 글과 책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출판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했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전문가인 오클랜드 박사의 말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주의로 끌어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 사회 프로그램, 조직 침투 등이 좋은 예입니다.”

예수회 회원이 맹세하는 서약만치 살벌하고 강렬한 서약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이전부터 잘 알려졌었고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전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약은 예수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전해 주는 훈계의 형태로 예수회가 사용하는 침투 방법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너는 위선자로 행동하는 것을 배워 왔다.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종교 개혁자가 되고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칼빈주의자가 되며

개신교도들 사이에서는 개신교도가 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어라.

심지어 그들의 강단에서 설교도 하며

너는 첩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의 환심을 사서 이단을 믿게 하도록...

어느 계급이든 인물이든, 일반 학교와 대학교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올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종교 재판을 수행하고 반대로 종교 개혁을 무마하는 데 이바지한 행적은 학문과 교육의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학계에서도 지도자가 되어 학교의 학풍을 장악했으며, 대학과 각종 교육 기관들을 포섭할 만큼 학술적 전략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인본주의 계몽을 통해 성경에 근거를 둔 개신교식 교육을 뒤집어엎는 것이었습니다.

소시(Frederick T. Saussy, 1936-2007)가 지은 예수회에 관한 책 <악의 지배자들>(Rulers of Evil), 예수회는 1749년까지 669개 대학과 176개 신학교 그리고 61개의 연구원과 24개의 종합대학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자기들의 방향대로 이런 단체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19세기에 스피켄은 예수회 교육의 영향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복음의 일부는 감추어 두고 마귀가 새롭게 세운 예수회 대학에서 공부해 왔습니다.”
예수회 회원들의 서약과 수장의 권고

나는 또 약속하고 선언합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끈질긴 전쟁을 일으키겠습니다. 모든 이단들, 프로테스탄트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에 대항하여서 지시를 받은 대로, 지구상에서 그들을 제거하고 몰살시키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공공연하게 벌일 수 없게 되면 독이 든 컵을 은밀히 사용하겠습니다. 교황의 어떤 대리자나 예수회의 수장에게 지시받은 대로 나는 목을 매는 끈, 쇠로 된 비수 혹은 총알로 언제라도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다.

일단 피를 두고 한 선서가 끝나면 예수회 수장이 말합니다.

너는 온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땅을 교황의 이름으로 소유하라. 교황 성하를 예수님의 대리자 및 섭정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는 저주받고 진멸당해야 한다.

예수회가 저지른 만행 중에는 1572년 프랑스에서 7만에서 10만의 개신교인(위그노)들을 살해한 ‘바들로 메의 날’ 대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이 14세로 하여금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보호해 주던 낭트 칙령을 1685년에 폐지하도록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개신교 신앙이 금지되었고 결과적으로 50만 명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회의 만행 및 탄: 압노블 교수의 말

예수회가 저지른 만행이 어찌나 흉악했는지 그들은 70개 이상의 나라들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심지어 그 나라들 중 80%는 카톨릭국가였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해 11명의 교황으로부터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

예수회는 계속해서 억압을 받았으나 그들을 억압하는 쪽에서도 역으로 예수회의 보복을 당달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스 대통령은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회에 대해 내가 이해하게 된 계기는 네 권의 책에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저자는 유럽의 다른 모든 군주들처럼 신변 노출을 두려워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회로부터 암살당할까 봐.”

예수회의 목표를 이해하려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회의 설립자 로올라의 동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상에서 그는 펼쳐진 책을 손에 가지고 서 있고 한쪽에는 예수회의 헌법이 쓰여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라틴어로 쓰인 글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동상을 보면, 로올라의 발이 머리가 형클어진 채 자빠진 어떤 사람을 밟고 있고 뱀은 그 밟힌 사람의 밑에 있으며 밟혀 있는 사람은 개신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밟혀 있는 사람도 책을 한 권 붙잡고 있다. 비록 그 동상 자체에 이렇다 할 표식은 보이지 않지만 그 책은 바로 성경이다.”

중세를 통틀어 천주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를 격하시켜야 한다.

종교 개혁을 거꾸러뜨리려는 논의는 교황 바오로 3세가 트렌트 공회를 소집하면서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다. 예수회를 중심으로 한 트렌트 공회

트렌트 공회에서는 종교 개혁으로 태동한 교리와 가르침을 반박하는 전략이 특별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회는 종교 개혁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반대하였습니다. 토론의 주된 주제는 은혜와 구원의 문제였는데 트렌트 공회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이 칭의(稱義)의 은혜를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이 공회의 선언 내용이 훗날 20세기에 제2차 바티칸 공회(AD 1962-1965)에서 재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로마 교회가 연 공회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를 표명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와 그 수하의 예수회는 개신교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개신교 성경 자체에 반격을 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의 다음 단계는 그들만의 고유한 신약 성경을 영어로 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랭스라는 도시에서 예수회 학자들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예수회의 랭스 역본'이라고 알려졌으며 나중에는 '두에 랭스' 역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한 두에 랭스 역본은 로마 교회가 종교 재판을 통해 성도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도 반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신비의 바빌론을 설명하는 부분에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회가 이 구절에다 쓴 각주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개신교도들의 피는 성도들의 피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도적, 살인마들과 다른 흉악범들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그들이 그런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 그 어떤 통치 권력도 답변할 필요가 없다.”

예수회에 대한 결론

드루킹의 말: 문재인 정권의 핵심은 예수회 선서를 한 자들

예수회: 루터의 종교 개혁을 반대하며 카톨릭 전체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천주교 조직

교육, 선교 등을 통해 세상 여러 나라로 침투하여 천주교 토착화 신앙을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함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천주교 내부에서도 증오를 받음

한 번도 교황을 내지 못하다가 2013년에 처음으로 제266대 교황 배출, 아르헨티나 출신, 1282년 만에 선출된 비유럽 출신 교황이자 카톨릭 교회 역사상 첫 미주 출신,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다.
이 사람이 교황이 되자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루터를 포함한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였다.

왜 남미 출신의 예수회 교황이 등장하였는가?

왜 드루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세력을 예수회 선서를 한 자들이라고 하였는가?

드루킹의 여론조작과 예수회 그리고 해방신학 해방신학

1517년 종교 개혁 이후 유럽의 시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진출함

개신교 영국의 후예들은 북미에서 미국과 캐나다 형성, 세계 최대의 자유민주주의 자유 시장 경제체제 형성, 세계 최대 부자 나라, 개인의 역량 우수성 강화, 산업 혁명 이후 거의 모든 창작물, 발명품은 영국과 미국에서 나옴

카톨릭 후예들은 중남미로 진출함, 북미처럼 좋은 환경/조건이었지만 카톨릭 전체주의 시스템하에서 늘 정치 불안, 경제난, 그 결과 중남미의 대다수 국가들은 사회주의 체제, 극심한 경제 빈곤(쿠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칠레는 잘 사는 나라였다가 선거를 통해 사회주의자 아옌데 선출, 사회주의 국가, 치솟는 물가, 혹독한 경제 시련, 피노체트의 쿠데타를 통해 다시 민주국가, 그 뒤 나라 안정

한마디로 중남미 국가들은 인민이 못사는 나라들이 되고 맘

카톨릭 전체주의의 영이 들어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배하는 영이 있다.

전 세계 지도를 펴고 잘 사는 나라(자유 인권 국가), 못 사는 나라(자유 인권 탄압 국가)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

아프리카에서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장 못사는 나라: 공산주의 국가, 천주교 국가, 이슬람, 불교 국가

심지어 유럽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등 천주교 국가가 가장 못 산다.

일본은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일찍이 영국과 미국의 프로테스탄트 사상과 문화 수입

해방신학의 등장

전체주의 국가의 공통 현상: 지배하는 특수 계층만 엄청나게 잘 살고 나머지 인민은 평균적으로 노예 생활, 중국, 북한, 중남미의 거의 모든 카톨릭 국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남미에서 예수회 중심의 해방 신학이 나옴(Liberation Theology)

“네이버 해방 신학, 현대 신학 이야기”

A. 해방신학의 배경

남미의 해방 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의 억압 상황에서 태어난 신학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남미는 극심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 및 그로 인한 엄청난 빈부 격차, 구조화된 실업과 문맹으로 특징지어진다.

남미의 비참한 상황은 서구세계의 식민지 개척으로 시작되었다. 그 선두주자였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천주교)은 무자비한 방법으로 남미의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 전통 문화를 파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미의 국가들은 명목상으로는 독립 국가가 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원조도 받았으나 그것이 이 지역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평등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이 내세운 근대의 진보, 자유, 평등, 기회와 같은 모토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약탈, 가난, 억압, 불평등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왜 그럴까? 천주교 전체주의의 영,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 신학은 이런 억압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해방과 자유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를 모색하는 가운데 태어난 '상황적인' 신학이다.

B.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을 세운 여러 가지 영향들

1. 그 첫 번째 영향은 교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구조를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사회적 가르침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의 영향 속에서 1968년 라틴 아메리카의 주교들은 콜롬비아의 메델린(Medellin)에서 열린 제2차 남미 주교 모임에서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구조화된 사회악을 비판하며 극복하는 데 있다고 선포하였다. 해방 신학은 이 메델린 회의 이후 11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 해방 신학의 형성에 영향을 준 두 번째 요인으로는 1960년대 이후 서독에서 일어난 정치 신학

(political theology)을 들 수 있다.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 등 제2차 세계대전을 품으로 겪은 젊은 신학자들은 나치 독일의 등장과 유대인 대학살(Holocaust)이 일어난 이유가 독일의 교회와 신학이 복음을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해서 정치적인 보수 반동주의를 정당화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 중 몰트만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요소를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정치적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 역시 신앙의 본질이라고 외쳤다.”

“메츠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의 억압구조에 대한 예언자적 항거의 죽음, 곧 정치적 죽음이었다. 교회의 삶은 고난당하는 이들과의 연대 속에서 잘못된 정치구조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특징지어지는 정치적인 삶이어야 한다.”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 정용섭 목사, 설교 비평

3. 해방 신학의 형성에 미친 세 번째 주요한 요인으로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들 수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빈부 격차는 더욱 커지고 노동자들은 그들의 노동에서 소외되어 비인간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자본주의에 의해서는 부의 균등한 분배로 인한 인간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현실 변혁은 프롤레타리아의 단결된 힘에 의한 혁명 외에는 없다고 가르쳤다.
4. 그 결과 이들은 남미의 정치적 억압과 사회·경제적인 수탈을 극복하는 길은 미국식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의 총체적 혁명, 곧 해방의 길이라고 본다.

C. 해방 신학의 특징:

1.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구조적인 가난 속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형성된 신학이라는 데 있다. 오직 고난받는 소수를 위한 신학, 소수를 위해 다수가 희생되어야 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2. 둘째, 그것은 사회 변혁(해방)을 지향하는 신학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신의 주된 사명을 복음 전파로 인한 죄의 회심과 개인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해 왔다. 해방 신학은 우선적 과제를 사회 정의를 이루어 억눌리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데 둔다. 그 이유는 가장 우선적이고 긴급한 것이 사회 정의와 평등의 실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교회는 마르크스주의를 가르친다.
3. 해방 신학은 신학의 가치를 그것이 얼마나 사회를 변화시키고 평등과 자유를 가져오는지 하는 데서 찾는다. 따라서 이 신학은 논리적, 교리적, 객관적이라기보다 열정적이며 예언자적이다. 선동적이고 수단의 정당화(선동과 폭력), 최종적 목표를 말할 때는 유토피아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4. 넷째로 해방 신학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가난한 자들을 편드는 당파성의 신학을 전개한다. 해방 신학자들에게 의하면 교회는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의 중간에 중립적인 자세로 서 있을 수 없고 우선적으로 가난한 자들 편을 들어야 한다. 곧 해방 신학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편애’를 그 실천의 중심으로 삼는다.
5. 성경 전체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와 억눌리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시며 편애하신다는 기사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가난한 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혹은 가난한 자 편을 드는 것을 교회는 지켜야 한다.
6. 더 나아가 해방 신학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편에 우선적으로 계시고 그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D. 해방 신학의 죄, 구원, 그리스도

1. 해방 신학은 죄를 사회구조적인 맥락 안에서 이해한다. 즉, 해방 신학에 있어서 죄는 우선적으로 사회·정치적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악의 힘을 가리킨다.
2. 성경의 자의적 해석: 출애굽 사건은 억눌린 사람들의 정치적 해방이다.
3. 또한 해방 신학은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먼저 총체적 구원, 곧 해방을 가져온 이로 이해한다(해방자 그리스도). 특히 이 신학은 예수가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해방과 자유의 나라였음에 주목한다.
4. 바로 이 점에서 해방 신학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를 뒤따르는 공동체이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공동체로 이해한다. 곧 해방 신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E. 해방 신학의 문제

1. 해방 신학은 반드시 공산주의/사회주의의 좌경화를 가져온다.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로 돌아간다.
2.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 사용을 방관 혹은 동조한다.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라 과격한 폭력 시위, 법치 민주주의가 아니라 광장으로 달려가는 인민 민주주의
해방 신학의 예수님은 총을 들고 인민을 구제하는 사람으로 표현됨
남미의 영웅 체게바라(아르헨티나)
3. 국내에서는 이것이 민중 신학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표적인 사람들: 자유주의 교단의 신학자들(성공회 대학의 좌파들)
4. 고통과 고난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경제 사회적인 구조악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 결과 계급투쟁, 사회주의 혁명, 정치적 의식화 양식
5. 대체로 해방 신학은 교육계로 가면 전교조, 노동계로 가면 민주노총, 천주교로 가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국제 정세로 가면 친중, 친북, 반미, 대한민국 부정

계급투쟁의 나라 대한민국

계급투쟁: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가난한 자, 동성애자, 이슬람,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만을 사람으로 보고 나머지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경제 생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분배, 경제 민주화 그 결과 해방 신학의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경제가 반드시 폭삭 망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 전 세계의 호황 속에 우리나라만 최대 실업률 성장 없이 분배만 하려고 한다.

드루킹의 말

드루킹의 말: 현 정부 실세는 예수회 선서, 해방 신학에 심취된 자들, 그들의 조국은 로마 교황청 우리나라에서 해방 신학 정권의 효시: 김대중 대통령

현 정권의 핵심 세력들 모두 천주교

문재인 카톨릭(디모테오)

김정숙(골롬바)

임종석(프란치스코)

조명균 통일부

송영무 국방부(체사리오)

도종환(진길 아구스티노)

박영선(에스테르), 2017년 5월 27일 개종

김경수(바오로)

김기식

김영춘 해수부 장관(다니엘)

김미화도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김제동도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만일 이들이 정말로 예수회 선서를 했다면 남미의 해방 신학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것

필연적으로 계급투쟁, 공산주의, 폭력 선동 사용 정당화: 민주노총, 전교조, 촛불 등 반드시 친북, 친중, 반미, 반 대한민국

그 결과: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개헌, 공산주의/사회주의/해방신학 개념

국민 대신 사람으로, 이 말은 억압받는 자만 사람이라는 말(인민), 토지 공개념, 군대와 경찰도 노조 결성, 무상 복지, 무상 의료 확대, 결국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경제 부흥 세력의 멸망, 국가의 폭망, 북한 접수, 카톨릭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봉건주의

카톨릭 해방신학의 전망

전 세상이 좌경화 되고 있다. 예수회 교황의 등장은 때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교황 프란치스코 등이 주도하는 종교 통합,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 정의 복음, 사회 구원, 결국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고한다.

적그리스도는 전체주의 지도자. 꼼짝 못하고 그를 따라야만 살 수 있다.

드루킹 결론

1948년 8월 15일 건국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산물, 헌법 체계가 그렇다.

그 결과 가장 잘사는 나라가 되었다. 자유 국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가치를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정치적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다. 기독교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다.
영혼의 자유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다.

현재의 싸움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다.

프로테스탄트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카톨릭 예수회 해방신학의 사회주의와의 싸움이다.

공산주의/사회주의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의 대립이다.

기독교인들이 자유 민주주의가 종교 개혁에서, 성경에서 나왔음을 기억하고 자유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